

□ 사례명 : 사라지는 농촌에서 살아나는 농촌을 만든다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156-1번지 일원 ○ 추진기간 : 2019~2021 ○ 사 업 비 : 250.7억원(군특 50, 도비 64, 군비 91.7, 기타 45) ○ 사업내용 : 스마트팜 조성, 전문기술교육, 창업실습훈련 전문가컨설팅, 청년창업지원 등
② 추진 경과	○ '18. 12.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9. 06. :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 ○ '19. 09.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실습교육 ○ '19. 12.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공사 준공 ○ '19. 12.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 05.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운영방안 및 활성화 용역 ○ '20. 09.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실습교육 ○ '20. 09.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공사 준공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창업교육장 조성 지연 - 경북도내 선도농가 멘토지정 현장실습교육 진행(12개소) ○ 도시청년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시설 마련 - 임시주거시설 11동, 귀농인의 집 6개소 ○ 신규 창업농의 기술수준이 낮아 초기 안정적 정착 애로 - 창업 초기단계에서 정착단계까지 농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④ 우수사례 내용	○ 인구소멸과 경제침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무기술-무연고-무자본”으로도 안정적 영농정착 모델 정립 - 떠나는 농촌에서 찾아오는 농촌을 전환 ○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창업 등 단계별 창업 실무교육 진행 - 이론교육(주1회)+현장실습교육(주4회) 병행 추진 ○ “사라지는 농촌에서 살아나는 농촌으로” 탈바꿈
⑤ 성과	○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 : 첨단온실 5개동 2.6ha, 딸기육묘장 0.5ha ○ 도시청년 유치 : 50명 ○ 청년 스마트팜 창업농 육성 : 7개소 ○ 농업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부족, 인구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스마트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촌정착모델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타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유치 희망(영천, 문경, 청송 등)

사라지는 농촌에서 살아나는 농촌을 만든다.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

1. 과제 선정 내용

- 소멸위기의 농촌지역에 청년창업농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력화 프로그램으로 농촌혁신성장 모델 제시
- ICT 스마트팜을 통한 생력화와 정밀과학농업에 따른 소득증대로 청년농업인 유입의 새로운 농촌모델 구축

2. 문제원인 분석

- 농업 고령화는 심화되는 반면 청년인력 유입은 미흡해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둔화
 - * '19년 의성군 지방소멸위험도지소(0.14)전국 1위, 고령화율 38%
 - ⇒ 매력적인 창업환경과 일자리 창출로 지속·생존·발전 가능한 행복 농촌 조성
- 인구소멸과 경제침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 고소득 작목인 딸기에 대한 스마트팜 조성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도시청년들의 농촌 정착 유도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업목표 : 낙후된 농촌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농업 시설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유도 및 창업희망농가 현장교육장 활용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기술-품질관리-경영·마케팅-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창업실무 교육 지원
 - 합리적인 농장경영과 스마트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 사업비 : 250.7억원(균특 50억, 도비 64, 군비 91.7, 기타 45)
 - * 연도별 : '19년 102억, '20년 67.7억, '21년 81억
 - * 기반조성 및 스마트팜온실 97억(도 54, 군 43억원)
 - * 창농기반조성 40억(균 20, 도 6, 군 14억원)
 - * 창업지원 및 창업실습훈련 : 113.7억(균 30, 도 4, 군 34.7, 기타 45억원)
- 내 용 : 스마트팜 단지(온실동, 육묘동, 선별출하동, 교육연구동)
전문기술교육, 창업실습훈련, 청년창업지원 등
- 창업교육장 조성

시 설 명	기 간	주 요 시 설	사업진도
온 실 동	'20. 3. ~ '20. 9.	온실 5동(A=25,888㎡)	완 료
육 묘 동	'20. 3. ~ '20. 4.	육묘장 3동(A=4,800㎡)	완 료
선 별 출 하 동	'20. 4. ~ '20.12.	선별·집하장, 포장실, 저온저장고 등	15%
교육연구동	'20. 9. ~ '21. 6.	스마트교육장, 회의실 등	설계(20.9~12.)
가공체험동	'20. 9. ~ '21. 8.	체험교육장, 가공실, 재료보관실 등	설계(20.9~12.)

4. 장애극복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창업교육장(온실동) 조성 지연
 - 경북도내 딸기 수경재배 선도농가 멘토지정 현장실습교육 진행(12개소)
- 유입되는 도시청년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주시설 마련
 - 임시주거시설 11동, 귀농인의 집 6개소 등 제공
- 신규 창업농의 영농기술 수준이 낮아 초기 안정적 영농 정착 애로
 - 창업 초기단계에서 정착단계까지 농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 창업농의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진단·분석 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가속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도시청년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무기술-무연고-무자본”으로도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영농기술-품질관리-경영·마케팅-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창업 실무 교육 진행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 이론교육(주1회)과 현장실습교육(주4회)으로 창업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하고, 스마트팜 기술 축적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 스마트팜 시설 조성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부들의 코워킹 및 인큐베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딸기육묘장’ ‘선별출하동’ ‘스마트팜 교육연구동’ ‘가공체험동’ 조성
- 도시청년의 농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50명) : ‘19. 4. ~ 8.(주1회)
- 스마트팜 창업실습훈련 (31명) : ‘19. 9. ~ 현재
- ‘20년 2기 스마트팜 교육(30명) : ‘20. 7. ~ 8.(주3회)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사업
 - ‘20년 7개소 → ‘21년 23개소 → ‘22년 20개소
- “사라지는 농촌에서 살아나는 농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고소득 작목인 과채류 스마트팜으로 지속적인 농촌정착모델을 정립

붙임1. 관련 자료 및 사진

1. 사업관련 자료

○ 보도자료

경상투데이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003면 경북

도시청년들, 이웃사촌 시범마을 정착 ‘착착’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 수료식
9월부터 도내 선도농장 실습훈련
창업희망자 10명 우선 선발·지원

경북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정착할 도시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 전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40명에게 수료증 수여와 소감 발표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 헌신한 학생회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스마트팜 아카데미는 경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정착할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지난 3월 창농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 50명을 선발해 5개월간 작물재배 기초 이론을 비롯한 육묘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김제, 거창, 경주 등 스마트팜 선도농장을 찾아 현장을 체험하고 딸기 재배 기술을 습득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농촌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영



농 정착을 준비했다.

이날 수료한 교육생들은 오는 9월부터는 의성 스마트팜 준공 전까지 도내 선도농장에서 실습훈련 과정을 거치며 의성 스마트팜 온실 공사가 완료되면 육묘부터 수확까지 딸기 재배 전과정을 새로 조성된 스마트팜에서 훈련한다.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아카데미 수료생 중 창업 희망자 10명을 우선 선

발해 내년도부터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고 향후 매년 20명을 선발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호 스마트팜 아카데미 자치회장은 “오늘 많은 교육생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고 그동안 정규교육 과정 외에도 학생자치회 주도로 매주 금요일 스터디 활동을 하며 창업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며 “의성군에 정착해 잘 사는 농촌, 부자 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

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영호 경북농업기술원장은 “5개월간 교육생들이 현업과 교육을 병행하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과 감사를 전한다”며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창업지원모델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져 경북농촌의 희망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 조감도(스마트팜 조성 사업장)



2. 현장실습교육

○ 전자장비 실습



○ 현장견학



○ 딸기육묘



○ 딸기정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



○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